

가치명료화 기법을 활용한 공직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A Way to Develop Contents for Officials Ethics Education using Value Clarification

박균열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Gyun-Yeol Park(pgy556@gnu.kr)

요약

이 연구는 가치명료화 기법을 활용한 공직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가치명료화 기법은 도덕성의 다양한 측면인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천력 중에서 도덕적 판단 역량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가치명료화 기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공직윤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과 그 평가 방안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콘텐츠 모형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기 때문에 자체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하지는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가치명료화 | 공직윤리 | 도덕적 감수성 | 도덕적 판단력 | 도덕적 동기화 | 도덕적 실천력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officials ethics education contents using value clarification. The value clarification is well known as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develop moral judgment among others as follows: moral sensitivity, moral motivation, moral practice. This study outlines the teaching-learning method and the evaluation method for the actual officials ethics education. This waits for the further empirical works.

■ keyword : | Value Clarification | Officials Ethics | Moral Sensitivity | Moral Judgment | Moral Motivation | Moral Action |

I. 서론

본 연구는 가치명료화(Value Clarification)를 활용하여 공직윤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안으로 둔다. 가치명료화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한다거나 정해진 어떤 가치를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교육생의 가치화 과정(value processing)을 계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

이 아니라 가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지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1-3].

공직자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근원이며 주체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 대국민 봉사를 위한 윤리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국민들의 아픔과 필요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의 아픔과 필요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요인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윤리적 역량의 핵심이다.

공직자의 윤리적 역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윤리적 역량 즉, 윤리적 정체성, 윤리적 가치수용 역량, 윤리적 판단역량, 윤리적 책임 역량, 윤리적 실천 역량 등이다. 이 개인적 특성에는 물론 환경적 상황을 선도하는 공직자 개인의 기능적 전문성도 포함된다.

결국 공직자의 윤리적 역량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기존의 공직윤리 교육은 당위적 요청이나 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초·중등학교 도덕과교육에서 도덕적 판단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에 잘 알려져 있는 가치명료화 기법을 활용해서 공직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치명료화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법

본 연구는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치명료화 기법을 원용한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극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문제 상황 속에 내재된 가치의 문제 중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경우, 공직을 수행하는 개인은 가치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다양한 선택지로서 가치들이 혼재할 때, 그 혼란을 명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관련 가치들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동되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가치를 토대로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명료화를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의 교

수학습과정의 한 모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 내지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가치명료화는 공직자로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가치에 관하여 보다 깊은 숙고를 하게 한다. 가치명료화는 직무 수행에 요청되는 가치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에 대한 숙고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직무 수행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지어 보다 잘 선택하고, 공적 직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공직가치와 관련된 윤리적 선택과 존중을 일상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으로 보다 잘 통합하는 활동 등에 의해 가능해진다.

둘째, 가치명료화는 인지적 측면의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 교육에 못지않게 규범의 이해·선택·평가·판단·결정에 따라 윤리적 규범 또는 규칙의 준수를 요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성향·태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이를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적용하면 윤리적 습관을 강화하는 행동적 측면의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치명료화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도덕적 혼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로서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가치화 과정에서 선택·존중·행동의 일련의 과정은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것을 존중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행동으로 옮겨진 가치는 직무 수행의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 및 유용성을 검증받게 된다. 또한 교육생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변화와 재구성은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선택·존중·행위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가치의 실현 혹은 윤리적 성장은 매 사안에 따라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의 독특한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결정, 그리고 이와 일관된 형태의 행위에 대한 강조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겪게 되는 윤리적 혼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런데, 가치명료화 과정에서 교수자는 교육생들의 개인적 선호를 무비판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교수자는 교육생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가진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닐 필요가 있다. 가치명료화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2][3].

첫째, 교수자는 공직자인 교육생들의 사고과정을 이끌어주고 돕는 보조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치를 숨김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인간적인 수업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생들이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대안들의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명료화 교수법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훈계식 교육이 아니라 수업지도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교육생들과 대화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는 교육생들의 가치명료화를 위한 대화에서 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생들의 명료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표현들을 잘 기억하고 교육생들과 대화해야 한다. 교육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계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교수자는 대화전략으로서 명료화질문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명료화질문은 다음에 제시되는 가치명료화 모형의 단계에 따른 것으로 가치명료화 모형의 해당 단계에 따라 제시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셋째, 교수자는 수업지도 중 언제나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교수자의 생각도 교육생들의 가치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생들의 생각을 단절시키지 않고 교수자의 지혜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는 형식의 발문을 취함으로써 교화를 피하면서도 교수자의 생각이 교육생에게 좋은 정보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에 있어

서 윤리적 가치의 수용과 관련하여 교육생으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윤리적 측면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직자인 교육생 개인을 가치 수용의 측면에서 만족시키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치를 위계화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가치 수용 역량의 형성 및 발휘에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명료화 모형의 일반적인 적용 과정은 선택, 존중, 행위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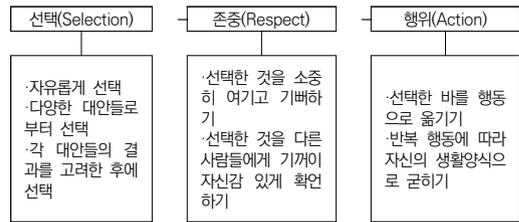


그림 1. 가치명료화 기법의 모형

여기에서 ‘선택’은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존중’은 그 선택한 바를 감정적·정서적으로 받아들여 소중히 하면서 기꺼이 실행하고자 의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는 그렇게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간의 이성·정서·행동의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 점이 가치명료화 모형의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교육생들의 가치 발달을 완성하기 위하여 실천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명료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4]. 교수자는 이 질문을 숙지하여 교수학습과정의 매 순간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5].

- Step 1: 자유롭게 선택
 -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 여러분은 이 신념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습니까?
 - 이러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 Step 2: 다양한 대안들로부터 선택
 - 여러분은 대안들을 고려하였습니까?
 -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차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 Step 3: 각 대안들의 결과를 고려한 후에 선택
 - 그 접근의 이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1년 후에도 당신은 동일한 방식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Step 4: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기
 -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 진정으로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이 지금 이 가치를 논하고 있는 방식이 자랑스럽습니까?

- Step 5: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감 있게 확인하기
 - 이 가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관점에 대해 기꺼이 알도록 하겠습니까?
 - 이 가치에 대한 입장을 기꺼이 공개하겠습니까?

- Step 6: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
 - 선택한 가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Step 7: 반복 행동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굳히기
 - 생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 이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고 싶습니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Ⅲ. 가치명료화 기법을 활용한 공직윤리 교수 학습법

1. 수업 절차

가치명료화 모형은 수업 전 활동, 본 수업 활동, 수업 후 활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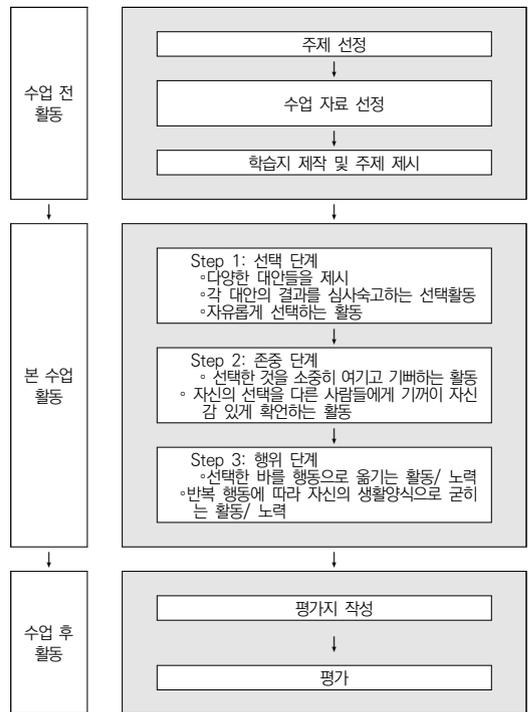


그림 2. 가치명료화 모형의 세부 적용 과정

이 과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계획안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실제 사례는 수업 모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Step 1: 선택 단계

-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 공직가치를 14개로 분류한 하위 요소로 분류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9개의 덕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 각각의

명칭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직청렴(Public Integrity): 헌법과 법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완전무결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
- ② 공직자긍심: 공직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 ③ 공직봉사: 공직에 대한 헌신, 공직 자부심, 공공봉사
- ④ 자발적 조직행동: 조직 내 자발적 참여와 구성원 간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시민정신에 따른 공직 수행.
- ⑤ 창의성: 독립적이고 참신한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 ⑥ 전문성을 지닌 책임과 대응: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의식에 기초하여 공익의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중을 위한 결정.
- ⑦ 변화와 혁신: 공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인과 조직을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개혁하는 것.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 융통성, 적극성.
- ⑧ 조직의 공정성: 개방적 소통을 통한 조직 내부의 형평과 공평무사.
- ⑨ 일과 가정의 조화: 삶의 가치에 대한 균형각각을 지닌 공직자로서 효율적 삶의 방식.
- ⑩ 합법성: 법률을 준수하고 규정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 것.
- ⑪ 윤리적 판단: 보다 적극적인 직업윤리로서의 공직윤리를 함양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윤리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것.
- ⑫ 형평성: 직무 수행 시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
- ⑬ 민주성: 국민의 뜻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보장하는 것.
- ⑭ 다문화 감수성: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포용력.

· 혹시 이 외에 추가하거나 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관련된 가치들을 추가하거

나 빼는 등 자유롭게 변형시켜 봅시다. ex) 정직성, 일관성, 원칙성, 구성원 간 상호 호혜성, 업무자율성, 협동, 조직신뢰, 반응성, 성과주의, 시민참여, 고객지향성, 효율적 자원 활용 ... 등

· 이상의 다양한 대안들 중 16개의 공직 가치를 골라 봅시다.

- 각 대안의 결과를 심사숙고하는 선택활동 실시
- A4 용지를 16장으로 자릅니다.
- 잘라진 각각의 종이 1장마다 자신이 선정한 공직 가치 1가지를 적습니다.
- 그리고 그 가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16개의 가치를 자유롭게 바꾸어 적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선택하는 활동 실시

① 첫째 단계: 5장 선택, 포기

- 16장의 종이에 쓰여 있는 가치들을 잘 살펴봅니다.
- 그 중 어쩔 수 없다면 포기할 수 있는 가치 5장을 책상 위에 한 줄로 내려놓습니다.
- 내려놓은 가치와 자신이 들고 있는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 자신의 선택 과정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② 둘째 단계: 4장 선택, 포기

- 남아 있는 11장의 종이에 쓰여 있는 가치들을 잘 살펴봅니다.
- 그 중 포기할 수 있는 가치 4장을 다시 책상 위에 한 줄로 내려놓습니다.

· 앞서 내려놓은 종이 5장의 윗줄에 다시 선택한 4장을 배열합니다.

· 내려놓은 가치와 자신이 들고 있는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③ 셋째 단계: 3장 선택, 포기

- 이제 7장이 남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7장을 잘 살펴봅니다. 그 중 포기할 수 있는 가치 3

장을 다시 책상 위에 한 줄로 내려놓습니다.

- 앞서 내려놓은 종이 5장의 윗줄에 다시 선택한 4장, 그리고 그 위에 3장을 배열합니다.
- 내려놓은 가치와 자신이 들고 있는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④ 넷째 단계: 2장 선택, 포기

- 손에 들고 있는 4장을 보고, 그 가치에 대하여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 그 중 포기할 수 있는 가치 2장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 앞서 내려놓은 종이들 위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열합니다.
- 내려놓은 가치와 자신이 들고 있는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⑤ 다섯째 단계: 최종 선택

- 이제 2장의 종이가 남아 있습니다. 양 손에 하나씩 종이를 집어 듭니다.
-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가치 1장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습니다.
- 자신이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가치를 살펴봅니다.

○ Step 2: 존중 단계

-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활동 실시
- 자신이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가치에 대해 다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 정말 그 하나를 위해 나머지 것들을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 책상에 내려놓은 종이들 중 아랫줄에 있는 것들과 윗줄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봅니다.
- 먼저 내려놓은(포기한) 가치들과 그 위에 있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 정말 위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선택할 수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 뒤섞여 있던 가치들의 순서를 배열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껴 봅니다.
- 자신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을 때 가진 느낌과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감 있게 확인하는 활동 실시

- 자신의 선택을 별도의 종이에 그리거나 붙여서 정리해 봅니다.
- 자신의 선택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자신이 선택한 최종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봅니다.

○ Step 3: 행위 단계

- 이 단계는 (가)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며, (나) 반복 행동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굳히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 한정된 실제 수업의 여건상 행동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정도로 결론짓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한 가치를 각 단계에 따라 선택한 이유에 관하여 다른 가치들과 비교하여 기록합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들 간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 이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할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일상의 과정 또는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매 순간이 다가올 때,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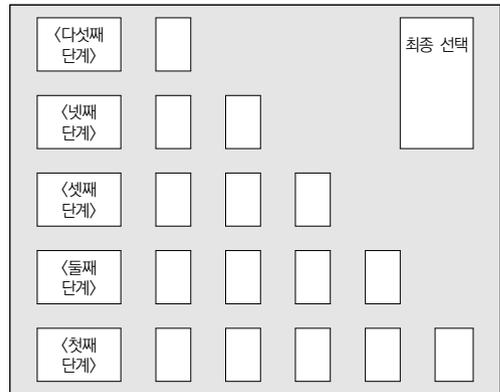


그림 3. 가치명료화 수업 결과

2. 평가 방법

윤리적 가치 수용 능력의 신장을 지향하는 가치명료화 수업에 있어서, 해당 수업의 진행 및 평가의 단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자기 평가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장이 남에게 공언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적도록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소그룹에 의한 평가이다. 그룹 토의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자기의 비판을 적도록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학습 자체의 평가이다. 특정한 교육생의 주장에 대한 학습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쓰도록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지도하는 교수사의 평가이다. 교수자는 가치지(value sheet)를 통하여 교육생들의 도덕 판단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가치지는 위협적이지 않은 가운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교육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안내해야 하는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교육생들을 명료화해야 할 문제 또는 주제들로 유도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또한, 평가를 실시한 이후 교수자의 활동 역시 피드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교수자는 가치지를 수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수자는 교육생들이 작성한 가치지를 모두 회수하여 도덕 판단 수준을 고려하여 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도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둘째, 이러한 교수자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생들이 알 수 없도록 한다. 이는 교육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자기 검열이나 허위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가치지나 발표는 공식적인 교육 성적과는 무관함을 주지시킨다. 이는 교육생들이 보이는 특정한 반응을 근거로 점수를 주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참여하는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도덕 판단 수준이 낮은 교육생들은 대화전략으로 가치를 개발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토론 전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 교육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소극적인 교육생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학습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3][6].

평가는 교수자와 교육생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바

탕으로 한 교육생 중심 채점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의 결과는 교육생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되새김의 가장 유용한 근거자료이다. 이 결과를 성급에 반영되는 점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치명료화 수업은 도덕적 추론과 그것을 통한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가치명료화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7-11]. 하지만 단위 수업마다 모든 것을 기존의 도구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윤리적 가치 수용과 종합적인 판단과 관련한 핵심 요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12][13], 단위 수업에 적합한 개인별 수행평가의 측면에서 평가표를 만들 수 있다[표 1][3].

표 1.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의 평가 기준표

항목 점수	도덕적 사고 기술	관련지식 및 내용영역의 활용	발표태도
0	자신이 정한 입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이 채택한 입장과 그 근거가 지극히 자기중심적 관점에 기인한 것이다.	선택한 이슈와는 무관하거나 상식적 수준의 내용을 제시한다.	발표에 임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
1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제시와 정당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보편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선택한 이슈와 관련된 사실적·이론적(특히 윤리적)지식을 다소간/약간 제시한다.	발표에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진지·신중·성실·겸손함을 유지한다.
2	자신이 정한 입장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당화한다. 또한 역할 채택에 따른 보편적 관점을 형성한다.	선택한 이슈와 관련된 사실적·이론적(특히 윤리적)지식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시한다.	발표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신중·성실·겸손하다. 특히 다른 교육생의 의견이나 질문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한다.

IV. 제언 및 결론

이 연구는 공직자의 윤리적 가치수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직자의 윤리적 가치수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교육생이라는 전

제하에 가치명료화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동되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가치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명료화는 가치를 이해한다거나 정해진 어떤 가치를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생의 가치화 과정(value processing)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가치명료화는 공직자로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가치에 관하여 보다 깊은 숙고로 초대한다. 둘째, 가치명료화를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적용하면 윤리적 습관을 강화하는 행동적 측면의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치명료화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도덕적 혼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로서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명료화 과정에서 교수자는 교육생들의 개인적 선호를 무비판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교수자는 공직자인 교육생들의 사고과정을 이끌어주고 돕는 보조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는 교육생들의 가치명료화를 위한 대화에서 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는 수업지도 중 언제나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교수자의 생각도 교육생들의 가치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공직 가치 또는 공직 윤리에 있어서 윤리적 가치의 수용과 관련하여 교육생으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써 선택-존중-행위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선택은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존중은 그 선택한 바를 감정적·정서적으로 받아들여 소중히 하면서 기꺼이 실행하고자 의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는 그렇게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인간의 이성·정서·행동의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 점이

가치명료화 모형의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공직자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국민들의 아픔과 필요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들의 아픔과 필요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요인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공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윤리적 사태에서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판단은 가치명료화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업방식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 연구는 다음의 정책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박균열 외, 『공직윤리모델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7.

참 고 문 헌

- [1] Louis Edward Rath, Merrill Harmin, and Sidney B. Simón, *Values and teaching: working with values in the classroom*, Indiana: C. E. Merrill Books, 1966.
- [2] Sidney B. Simon, *Howard Kirschenbaum (eds.) Readings in Values Clarification*, MN: Winston Press, 1973.
- [3] 정창우, 박영하, 조성태, 이병일, 김용순, 윤영진, 김현섭, 배은주,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9.
- [4] Howard Kirschenbaum, 추병완, 김항인, 정창우 공역, *도덕·가치교육을 위한 100가지 방법*, 서울: 도서출판 울력, 2006.
- [5] 서울행정학회, *새로운 공직가치 도출 및 교수체계 개발*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07. 12. 24), URL: <http://www.prism.go.kr> (검색: 2019.10.19).
- [6] Alan L. Lickwood, "The Effects of Values Clarification and Moral Development Curricula on School-Age Subjects: A Critical Review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8, No.3, pp.325-364, 1978.
- [7] L. Kohlberg and R. Kramer,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Vol.12,

- pp.93-120, 1969.
- [8] J. R. Rest, "New Approaches in the Assessment of Moral Judgment,"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1976.
- [9] J. R. Rest,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79.
- [10] G. Lind, "How does one measure moral judgment? Problems and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a complex construct"[German: Wie mißt man moralisches Urteil? Probleme und alternative Möglichkeiten der Messung eines komplexen Konstrukts], In: G. Portele, ed., *Sozialisation und Moral*, Weinheim: Beltz, 1978.
- [11] G. Lind, 박균열, 정창우 공역, *도덕적 민주적 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 서울: 양서각, 2017[2016].
- [12] Howard Kirschenbaum, "A Comprehensive Model for Values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The Phi Delta Kappan*, Vol.73, No.10, pp.771-776, 1992.
- [13] Alfie Kohn, "How Not to Teach Values A Critical Look at Character Education," *Phi Delta Kappan*, Vol.78, No.6, pp.428-439, 1997.

저 자 소 개

박 균 열(Gyun-Yeol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문학사)
- 1994년 8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 도덕성 측정, AI윤리, 정치윤리